

간호대학생의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조 영 희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on Psychiatric Nurses' Image for Nursing Students

Cho, Young-Hee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nd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on psychiatric nurses' image for nursing students. **Methods:** Participants were 349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G metropolitan city. A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10 to 30, 2016,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 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0.0. **Results:** The level of psychiatric nurses' image for nursing students was 4.03 ± 0.46 . Models including the variables,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nd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explained 30.0% of the variance in the image of psychiatric nurses.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beta=.28$, $p<.001$). **Conclusion:** Based 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steps should be taken to design intervention programs that emphasize a positive image of psychiatric nurses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Empathy, Communication, Attitude, Image, Stud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신간호사는 정신건강분야인력 중 가장 많은 수의 전문 인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 넓은 의미에서 정신간호사는 정신보건 간호사를 포함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간호사를 총칭하며[2], 활동영역은 정신 병원에서의 치료와 질병 관리위주의 간호제공뿐 아니라,

정신건강유지와 증진, 직업적 재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왔다[3]. 업무의 특성상 정신간호사는 자기 자신을 치료적인 도구로 활용하여, 대상자에 대한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할 뿐 아니라,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게 된다[4]. 따라서 정신간호사의 전문적 능력과 숙련도는 정신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어[5],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개인의 행동결정, 업무 수행 시 영향

주요어: 공감, 의사소통 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이미지, 간호대학생

Corresponding author: Cho, Young-Hee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201 Yeodai-gil, Gwangju 62396, Korea.
Tel: +82-62-950-3998, Fax: +82-62-950-3962, E-mail: choyh@kwu.ac.kr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2016(KWU116-044).

Received: Jul 20, 2016 | Revised: Sep 13, 2016 | Accepted: Oct 24,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6]. 이미지는 사회문화적 발달과 시대적 흐름,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 대중매체나 인터넷 상의 간호사 이미지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오고 있다[7].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는 그 전문직의 발전성과 미래지향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며[8], 간호사의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 행동, 직무만족도와 실무역량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특정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졸업 후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미래 간호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그러므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정신간호사 이미지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올바른 이미지 형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공감은 상대방의 정서적 상태, 상대방에 대한 관심,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서적인 반응으로 상대방의 내면을 자신의 내면인 양 지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지지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0]. Kunyk와 Olson [11]은 공감을 간호중재의 기본 전제로써 간호사에게 대상자의 느낌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였고, Tanzia 등 [12]은 공감이 전문가질로써 대상자의 우울, 불안을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공감은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역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13]. 따라서 공감이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에게 중요한 핵심역량이다. 간호는 상호작용하는 인간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돌봄 행위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치료적 관계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이다[13]. 간호사의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은 대상자에게 신뢰감,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간호사는 직무만족도가 높고 직무 스트레스는 낮아 그 조직에 헌신하고자 하는 정도를 높여지게 한다[14]. 특히 정신간호 분야에서는 의사소통을 통한 대상자의 행동의 변화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관계 그 자체로써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은 더욱 중요하다[15]. 또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의 전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13], 정신간호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의사소통능력이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확인해보는 것은 필요하다.

사회구성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치료, 사회재활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16].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고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재발의 가능성을 높인다[17]. 반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거부감과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고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18]. 그러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단시간 내에 형성되거나 변화되지 않으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에 [16,17], 간호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정도를 확인하고,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파악을 위한 연구를 통해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과 전문직 사회화 정도는 높아지며[8], 교육, 실습, 업무수행, 전문직관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9,19]. Jeong과 Yoo는 [20]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경로를 입원경험, 실습과 같은 간호사 접촉경험 등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정신간호사 이미지 연구는 정신간호사 이미지와 직무만족도, 자기표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Cho의 연구[1]외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미래 정신간호분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정도와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 분야의 미래의 주역이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 의사소통능력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정도와 관계를 확인하고,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올바르게 긍정적인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 의사소통 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 정도와 관계성을 파악하고,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광역시 소재 2개 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대상 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학과장에게 직접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다. 대상학교의 간호학과 재학생 중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로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회귀분석에 이용할 예측 변수 13개로 산정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60명 이상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통계분석 시 변수가 제외되거나 응답누락 등을 고려하였고,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참여 희망자의 일부를 누락시키기 어려워 총 387부를 배부하여 358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누락이 많은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총 349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공감

Davis [21]가 개발한 성인용 대인관계 반응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Park [22]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 5점 척도이며, 점수범위는 평균 1점에서 5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역산하였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5였다.

2) 의사소통능력

Hur [23]가 개발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GICC)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 5점 척도이며, 점수범위는 평균 1점에서 5점까지이고 점수

가 높을수록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는 지각된 의사소통능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6이었다.

3)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Taylor와 Dear가 개발한 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CAMI)를 Lee [24]등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0문항, 5점 척도이며, 4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문항을 역산한 평균점수로 점수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하부요인은 '권위주의', '자비심', '사회생활제한', '지역정신보건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 당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5개의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1점, 부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덜 권위주의적이며, 자비심이 더 많고, 사회생활에 덜 제한적이며, 지역사회 접근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α 값은 권위주의 .57, 자비심 .64, 사회생활제한 .72, 지역정신보건개념 .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8이었고, 하부요인은 권위주의 .62, 자비심 .66, 사회생활제한 .76, 지역정신보건개념 .63이었다.

4) 정신간호사 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Cho 등[25]이 개발한 정신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측정도구인 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을 사용하였다. PSYNIS는 총 28문항, 5점 척도이며, 점수범위는 평균 1점에서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4개의 하부요인인 '전문적 특성', '업무적 특성', '조직적 특성', '개인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3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1041485-201606-HR-001-07)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 문제를 고려하여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에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설문조사에 불응할 권리, 비밀보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만을 편의 표집하여 무기명 서면동의하에 자료수집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걸어 관리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를 분석하였고,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분석은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86 ± 2.81 세였고, 성별은 '여' 95.4%(n=333)가 더 많았고, 학년은 '1학년' 22.7%(n=79), '2학년' 29.2%(n=102), '3학년' 18.9%(n=66), '4학년' 29.2%(n=102)였다.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정신질환 경험은 '없다' 92.6%(n=323), 정신장애인을 만나본 경험은 '있다' 75.9%(n=265), 간호학 전공 선택의 동기는 '적성·흥미 때문' 43.8%(n=153), 정신간호학 수업이나 실습경험은 '정신간호학을 배우지 않음'이 51.9%(n=181), 전공만족정도는 '보통' 75.1%(n=262), 정신과 근무희망은 '잘 모르겠다' 52.7%(n=184), 정신간호사 이미지 영향매체는 'TV' 41.3%(n=144)가 가장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 정도

대상자의 공감은 평점 5점 만점에 3.73 ± 0.37 점, 의사소통능력은 평점 5점 만점에 3.76 ± 0.43 점이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평점 5점 만점에 3.50 ± 0.40 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은 권위주의 3.68 ± 0.40 점, 자비심 3.72 ± 0.40 점, 사회생활제한 3.26 ± 0.41 점, 지역정신보건개념 3.17 ± 0.36 점이었다. 대상자의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평점 5점 만점에 4.03 ± 0.46 점이었으며, 각 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0.86±2.81
Gender	Male Female	16 (4.6) 333 (95.4)
Grade	1st 2nd 3rd 4th	79 (22.7) 102 (29.2) 66 (18.9) 102 (29.2)
Family history of mental illness	Yes No	26 (7.4) 323 (92.6)
Experience of patient with mental illness	Yes No	265 (75.9) 84 (24.1)
Choose motivation of nursing	Aptitude School achievement Recommendation	153 (43.8) 46 (13.2) 150 (43.0)
Experience of mental health nursing class or practice	Not attend class Attended class, not attend practice Attended class & practice	181 (51.9) 66 (18.9) 102 (29.2)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Common Dissatisfied	49 (14.0) 262 (75.1) 38 (10.9)
Want to work for psychiatric part	Want Don't know Not want	111 (31.8) 184 (52.7) 54 (15.5)
Influence of media about psychiatric nurse	T.V Book Internet Movie Others	144 (41.3) 41 (11.7) 57 (16.3) 55 (15.8) 52 (14.9)

위영역별 평균은 업무적 특성이 4.16 ± 0.52 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적 특성 4.07 ± 0.68 점, 조직적 특성 4.03 ± 0.59 점, 전문적 특성 3.90 ± 0.50 점 순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차이

대상자의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3학년이 2학년, 4학년보다 낮았고($F=4.23, p=.006$), 적성에 따라 간호학을 선택한 대상자가 성적에 따라 선택한 대상자보다 정신간호사 이미지점수가 더 높았다($F=3.72, p=.025$). 정신간호학 수업만 받은 대상자가 정신간호학 수업경험이 없는 대상자와 정신간호학 수업과 실습까지 모두 경험한 대상자보다 정신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더

Table 2. Degrees of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and Psychiatric Nurses' Image ($N=349$)

Variables	Categories	M \pm SD	Min	Max
Empathy		3.73 \pm 0.37	2.17	4.90
Communication ability		3.76 \pm 0.43	1.87	5.00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3.50 \pm 0.40	2.65	4.50
	Authoritarianism	3.68 \pm 0.40	2.00	4.70
	Benevolence	3.72 \pm 0.40	2.50	4.80
	Social restrictiveness	3.26 \pm 0.41	2.20	4.40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3.17 \pm 0.36	2.00	4.50
Psychiatric nurses' image		4.03 \pm 0.46	1.93	5.00
	Professionalism	3.90 \pm 0.50	2.22	5.00
	Activism	4.16 \pm 0.52	1.71	5.00
	Coordination	4.03 \pm 0.59	1.67	5.00
	Personalism	4.07 \pm 0.68	1.00	5.00

낮았고($F=6.57, p=.002$), 전공에 만족하는 대상자가 불만족하는 대상자보다 정신간호사 이미지가 더 높았다($F=4.56, p=.011$).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정신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F=5.50, p=.004$). 그러나 그 외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관계

대상자의 정신간호사 이미지와 공감($r=.40, p<.001$), 의사소통능력($r=.35, p<.001$),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r=.40, p<.001$)는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공감과 의사소통능력($r=.43, p<.001$),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r=.35, p<.001$)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r=.13, p=.013$)도 상관정도가 낮기는 하지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예측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 정신간호학 수업 또는 실습 경험유무, 정신과 근무 희망은 더미처리하고, 주요변수인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함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가정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통

계량이 1.907로 자기상관이 없었다. 모든 변수들의 상관계수가 .80을 넘지 않고, 공차한계는 0.71~0.85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7~1.40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이 넘은 변인이 없었으므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점도를 분석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있어 오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고 회귀표준화 잔차의 정규분포 P-P 도표에서 선형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2.34, p<.001$).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인자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beta=.28, p<.001$), 의사소통능력($\beta=.22, p<.001$), 공감($\beta=.19,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예측인자들의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설명력은 30.0%로 나타났다. 더미처리하여 분석한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전공만족은 통계과정에서 제외되었고 그 외 변수들은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 정도를 파악하고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공감은 평균 3.73점으로,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등의 연구[26]에서 3.58점,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Ji의 연구[13] 3.68점과 큰

Table 3. Differences of Psychiatric Nurses' Imag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3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Psychiatric nurses' image	
		M±SD	t or F (p)
Age (year)	18~20	4.04±0.42	0.43 (.725)
	21~25	4.01±0.49	
	26~30	4.06±0.34	
	31~35	3.85±0.68	
Gender	Male	3.87±0.37	-1.45 (.148)
	Female	4.04±0.46	
Grade	1st ^a	4.00±0.40	4.23 (.006) c < b, d
	2nd ^b	4.08±0.47	
	3rd ^c	3.87±0.54	
	4th ^d	4.10±0.39	
Family history of mental illness	Yes	4.10±0.62	0.78 (.434)
	No	4.02±0.44	
Experience of patient with mental illness	Yes	4.06±0.44	1.79 (.074)
	No	3.95±0.50	
Choose motivation of nursing	Aptitude ^a	4.08±0.47	3.72 (.025) b < a
	Achievement ^b	3.88±0.41	
	Recommendation ^c	4.01±0.43	
Experience of mental health nursing class or practice	Not attend class ^a	4.05±0.44	6.57 (.002) b < a, c
	Attended class, not attend practice ^b	3.85±0.53	
	Attended class & practice ^c	4.10±0.39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a	4.18±0.40	4.56 (.011) c < a
	Common ^b	4.02±0.45	
	Dissatisfied ^c	3.90±0.48	
Want to work for psychiatric part	Want ^a	4.13±0.40	5.50 (.004) b, c < a
	Don't know ^b	4.00±0.47	
	Not want ^c	3.91±0.44	
Influence of media about psychiatric nurse	T.V	3.98±0.47	0.99 (.410)
	Book	4.08±0.47	
	Internet	4.04±0.43	
	Movie	4.02±0.40	
	Others	4.11±0.46	

차이가 없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평균 3.76점으로, 대상학년이 달라 단순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Ji 등의 연구결과[27] 3.5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3.50점으로, Choi와 Park의 연구[28]에서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전 3.84점, 실습 후 3.92점이었던 결과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다. 넷째,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평균 4.03점이었고 이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 [1]의 연구결과 3.90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에서는 업무적 특성이 4.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적 특성이 4.07, 조직적 특성 4.03 전문적 특성 3.90순으로 나타나, 선행연구[1]와 상이한 하부영역의 순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이 달라 단순 비교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추후 반복, 확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이 업무적 특성에서 가장 긍정적인 정신간호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 가족의 교육과 상담에 관련된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문적 특성이 하위 영역 중 낮게 나타난 것은 보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은 정신건강분야의 특성상 정신간호사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대상자들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정신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의 내용과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학과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간호사의 업무와 활동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필요할 것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and Psychiatric Nurses' Image (N=349)

Variables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Psychiatric nurses' image
	r (p)	r (p)	r (p)	r (p)
Empathy	1.00			
Communication ability	.43 (< .001)	1.00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35 (< .001)	.13 (.013)	1.00	
Psychiatric nurses' image	.40 (< .001)	.35 (< .001)	.40 (< .001)	1.00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Psychiatric Nurses' Image (N=349)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0.92	0.28		3.36	< .001
Experience of mental health nursing class, practice	0.16	0.05	.16	3.21	.053
Grade	0.13	0.05	.13	2.71	.057
Want to work at psychiatric part	-0.15	0.58	-.09	-2.00	.062
Empathy	0.23	0.07	.19	3.56	< .001
Communication ability	0.21	0.05	.22	4.49	< .001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0.04	0.01	.28	5.78	< .001
$R^2=.31$, Adj. $R^2=.30$, $F=22.34$, $p<.001$					

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정신간호사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간호학 수강과 정신간호학 실습 경험에서 정신간호학 수강경험만 있고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가장 정신간호사 이미지가 낮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임상 실습 전·후 비교에서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함을 보고한 Seong 등[1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실습 후 간호사 이미지가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났던 Jeong과 Yoo [2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19,20] 일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연구결과이므로 단순비교가 어려워 정신간호학 실습 전·후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비교, 확인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 당시 3학년 학생들은 정신간호학을 1학기 수강한 상태였으며, 아직 정신간호학 실습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분야인 관계로 정신간호사의 전문적인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직접적인 경험, 관찰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 이미지 형성은 직접적인 간호사와의 접촉경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20], 일반 임상분야에 비해 일반인의 접근가능성이 낮은 정신간

분야의 특성상 학생들은 실습 2~3주간의 정신간호학 실습지의 경험에 따라 정신간호사의 이미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신간호학 실습지가 병원과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중 어느 한 곳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실습지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상이하고, 임상지도자에 대한 경험에 따라 학생들의 정신간호사의 이미지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양한 실습환경의 확보와 임상지도자의 자질향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전공교육과정을 통해 정신간호사의 역할, 업무 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강, 봉사활동 등의 교과·비교과 활동을 통해 병원과 지역 정신건강분야의 정신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직·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공에 만족하는 대상자와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더 긍정적인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간호학이라는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며[19],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신간호사에 대한 전문적 특성, 업무적 특성에 대해 보

다 더 관심이 있거나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다양한 직·간접적인 경험의 영향으로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감과 의사소통능력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Ji [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치료적 관계형성에서 핵심적인 능력인 공감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수록, 긍정적인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목적인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예측인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로 확인되었으며, 의사소통능력, 공감 순이었고 설명력은 약 30%였다. 본 연구에서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인자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능력, 공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끼고, 편견을 갖게 함으로써[29], 일반 병동과 상이한 대상자들과 비교적 제한된 공간 안에서 많은 시간을 대상자와 함께 보내며,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간호를 수행하는[30] 정신간호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감과 의사소통능력도 예측인자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감과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 간호 전문직관과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의 전문성 등을 높이고[13], 자신감을 높여[14], 자기 자신을 치료적인 도구로 활용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정신간호사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하고[15], 대상자와의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하게 함으로써 정신간호사 이미지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공감,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영향요인을 고려한 정신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확인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고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비교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일반화와 타당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자료수집을 시행한 점도 제한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확인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신간호사에게 있어 핵심역량인 공감,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 긍정적인 정신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하였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정

신간호사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도 확인 하였다. 따라서 향후 올바르게 긍정적인 정신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의사소통 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 정도와 관계성을 파악하고,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사 이미지 향상 전략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4.03점이었으며, 공감, 의사소통능력이 높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정신간호사 이미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능력, 공감 순으로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대해 약 3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나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상관관계와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정신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Cho YH. Relationship of psychiatric nurses' image, job satisfaction and assertiveness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4;23(3):135-43. <https://doi.org/10.12934/jkpmhn.2014.23.3.135>
2. Yang S, Lee KS, Lee JS, Kweon HJ, Lee MH, Oh KO, et al.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5th ed. Seoul: Hyunmoonsa; 2016. 798 p.
3. McKie A, Naysmith S. Promoting critical perspectives in mental health nursing education. J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4;21(2):128-37. <https://doi.org/10.1111/jpm.12061>
4. Happell B, Martin T, Pinikahana J.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a comparative study of psychiatric nurses from forensic and a mainstream mental health service. Int J Ment Health

- Nurs. 2003;12(1):39-47.
<https://doi.org/10.1046/j.1440-0979.2003.00267.x>
5. Burnard P, Fothergill A. Community mental health nurses in Wales: Self reported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J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0;7:523-8.
<https://doi.org/10.1046/j.1365-2850.2000.00351.x>
6. Roberts DW, Vasquez E. Power: an application to the nursing image and advanced practice. *AACN Clin Issues*. 2004;15(2):196-204.
7. Kalishch BJ, Begeny S, Neumann S. The image of the nurse on the internet. *Nurs Outlook*. 2007;55(4):182-8.
<https://doi.org/10.1016/j.outlook.2006.09.002>
8. Saleema G, Rozina K, Samina V, Kausar K, Yasmin A, Judith M.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leader's perceptions of professional empowerment amongst Pakistani nurses. *Int J Nurs Educ*. 2015;7(3):247-51.
<https://doi.org/10.5958/0974-9357.2015.00174.9>
9. Kim WO, Kang HS. Changes of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s every clinical experience. *J East-West Nurs Res*. 2004;10(1):68-74.
10. Rogers D, Hudson C. The role of emotion control and emotional ruminations in stress management training. *Int J Stress Manag*. 1995;2(3):119-32.
11. Kunyk D, Olson JK. Clarification of conceptualizations of empathy. *J Adv Nurs*. 2001;35(3):317-25.
<https://doi.org/10.1046/j.1365-2648.2001.01848.x>
12. Tanzi S, Biasco G, Baile WF. Enhancing the empathic connection: using action methods to understand conflicts in end-of-life care. *J Patient Experience*. 2014;1(1):14-21.
<https://doi.org/10.1177/237437431400100104>
13. Ji EJ.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 Korean Data Anal Soc*. 2014;16(3):1685-97.
14. Lee HS, Kim JK.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typ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hospital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in*. 2010;16(4):488-94. <https://doi.org/10.1111/jkana.2010.16.4.488>
15. Lee KJ, Park HJ, Kim SS.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unseling self-efficacy and empathy of psychiatric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Nurs Science*. 2014;26(1):9-19.
16. Yoon SJ, Beun EK, HA JS.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practicum satisfaction and attitudes toward mental disorder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social welfare students who experienced psychiatric practicum. *J Rehabil Res*. 2007;11(2):106-30.
17. Thornicroft G, Rose D, Kassam A. Discrimination in healthcare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t Rev Psychiatry*. 2007;19(2):113-22. <https://doi.org/10.1080/09540260701278937>
18. Lee SY.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social distance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disabled individuals [master's thesis]. [Daegu]: Kemyung University; 2015. 61 p.
19. Seong JA, Yeom EY, Do YS.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 Korea Contents Assoc*. 2014;14(11):798-809.
<https://doi.org/10.5392/JKCA.2014.14.11.798>
20. Jeong HS, Yoo YS. Image of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image determinants. *J Korean Acad of Public Health Nurs*. 2010;24(1):29-38.
21. Davis M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980;10:85-100.
22. Park SH.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J Korean Educ Res*. 1996;35(5):143-66.
23. Hur GH.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J Korean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03;47(6):380-408.
24. Lee JH, Lee CS, Kwang TY, Hahn KS, Lee YM. A survey for 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ill in Suseo-Irwon area. *Yong-In Psychiatry Bull*. 1996;3(2):188-202.
25. Cho YH, Kweon YR, Jo B.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5;24(4):320-9.
<https://doi.org/10.7739/jkafn.2015.22.3.328>
26. Kim HJ, Lee MS.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J Korean Acad Soc of Nurs Educ*. 2015;21(2):237-45.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237>
27. Ji EJ, Bang MR, Jeon HJ.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of Nurs Educ*. 2013;19(4):571-9.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4.571>
28. Choi MO, Park EJ. A study on change in attitudes and prejudice toward the mentally ill following mental health practice for social work students. *J Korean Soc Welfare Educ*. 2007;3(1):1-39.
29. Chung YH, Choe JS, Kim EH, Kim JS, Choi HK. A study on the stigma hel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against mental illness and mentally ill patients. *Social Study*. 2008;16(2):195-210.
30. Corrigan PW, Watson AC, Warpinski, AC, Gracia G. Stigmatizing attitudes about mental illness and allocation of resources to mental health services. *Community Ment Health J*. 2004;40(4):297-307.